

## 〈오대어부가〉(9곡)의 세 텍스트 연구

—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으로 본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 —

양희철\*

<차 례>

1. 서론
2. 오대 상류(제2~4곡)의 텍스트
3. 오대 하류(제5~9곡)의 텍스트
4. 오대 상하류(제1~9곡)의 텍스트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오대어부가>(9곡)가 탈착형의 연시조라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먼저, 오대 상류(제2~4곡)의 텍스트, 오대 하류(제5~9곡)의 텍스트, 오대 상하류(제1~9곡)의 텍스트 각각에서, 단시조의 단순한 나열이나 집적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연시조를 연시조이게 하는, 결속과 종결은 물론, 통일된 구조와 주제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세 텍스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세 텍스트들은 각각 이중경이 오대구곡에 들어온 두 목적(맛있는 음식으로 노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산수의 즐거움을 즐기)의 하나 하나와 그 전체의 실천 및 그 실천을 노래한 내용들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세 텍스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런 사실들로 보아, <오대어부가>(9곡)는 세 텍스트로 탈착되는 탈착형의 연시조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속, 구조, 종결, 주제, 탈착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1. 서론

이 글은 이중경(李重慶, 1599~1678)의 연시조 <오대어부가>(9곡)<sup>1)</sup>의 세 텍스트별[오대 상류(제2~4곡)의 텍스트, 오대 하류(제5~9곡)의 텍스트, 오대 상하류(제1~9곡)의 텍스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하여, 탈착형 연시조<sup>2)</sup>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 <오대어부가>는 <오대어부가>(9곡), <어부사>(5장), <어부별곡>(전후3장) 등을 묶어서 부른 명칭인 동시에, 연시조 <오대어부가>(9곡)를 지칭하기도 한다. 양자를 <오대어부가>(20수)와 <오대어부가>(9곡)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2) 탈착형 연시조는 연시조의 일부를 떼어서 연시조로 수용하기도 하고, 붙여서 연시조로 수용하기도 하는 연시조의 명칭이다. 탈착형은 <옹비어천가>와 판소리에서도 발견되는 형식이다. 탈착형 연시조로는 <도산십이곡>을 포함한 15편이 1차로 정리되었고(양희철, 『연시조 작품론 일반: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중심으로』, 월인, 2016, 415~416쪽), 그 후에 신희의 연시조 2편, 안서우의 연시조 1편, 김천택의 연시조 2편 등도 탈착형 연시조로 정리되었다(양희철, 『신희의 제목 없이 합철된 두 연시조: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으로 본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 『청대학술논집』 2016년도 특집호 11권(교수학습개발연구),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17a, 5~32쪽; 양희철, 『유원십이곡』의 텍스트 연구: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으로 본 연시조의 합철 가능성』, 『청대학술논집』 28,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17b, 7~33쪽; 양희철, 『제목 없이 합철된 두 연시조(김천택)의 연구: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으로 본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 『어문연구』 1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c, 127~153쪽).

그리고 이 글의 부제인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으로 본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에서와 같이 작품 내적으로 접근할 때에, 작품 외적 측면에서 취약점을 보이게 된다. 이 작품 외적인 측면에서의 충분한 논의는 다른 글로 돌리고, 논의에 필요한 최소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산십이곡>은 판본을 보면, <도산십이곡>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도산육곡지일>과 <도산육곡지이>로 분리되어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도산십이곡>이 <도산십이곡>, <도산육곡지일>, <도산육곡지이> 등으로 탈착되어 수용된 사실을 보여주면서, <도산십이곡>이 탈착형의 연시조임을 말해준다. 게다가 이런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산십이곡>이라는 제목하에, 다시 <언지>와 <언학>이라는 소제목을 제시하고 전6수와 후6수를 쓴 것도, 이 <도산십이곡>이 <도산십이곡>, <언지>, <언학> 등으로 탈착된 탈착형 연시조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검토한 <오대어부가>(9곡)를 쓴 이중경은 <도산십이곡>을 모방하고 반으로 줄인 <어부별곡>을 지었다. 그런데 이 <어부별곡> <어

<오대어부가(梧臺漁父歌)>(9곡)는 장인진이 발굴경위, 작자(가계, 생애), 작품(판본고, 창작배경과 제작지, 작품내용, 작품형식) 등을 소개 정리하면서<sup>3)</sup> 그 연구가 시작되었다.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장인진의 글로 돌리고, 창작시기, 창작의 사회적 배경, 창작의도, 작품론 등의 영역에서 그 간에 이루어진 연구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대어부가>(9곡)의 창작시기는 <자서(自序)> 말미의 기록(“丙申夏五月中旬”)에 근거하여, 이증경의 나이 58세(1656년)에 지은 것으로 정리되었다가, 1648~1653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수정되었다.<sup>4)</sup> <오대어부가>(9곡) 창작의 사회적 배경은 ‘물러난 세계에서 창작된 것’<sup>5)</sup>과 ‘경제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그의 의도가 어느 정도 성취된 다음에 득의(得意)의 심정으로 지은 것’<sup>6)</sup>으로 주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주장들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르게 본 견해가 나왔다.<sup>7)</sup>

부별곡>이란 제목하에 다시 <전3장>과 <후3장>이란 소제목을 붙이고 작품을 제시하였다. 이런 사실 역시 <어부별곡>이 <어부별곡>(6장), <전3장>, <후3장> 등으로 탈착되어 수용된 탈착형 연시조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한 작품 외적 맥락(작가가 오대에 들어온 두 목적)에 따른 <오대어부가>의 수용 가능성도 탈착형 연시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품 외적인 측면에서의 충분한 논의는 다른 글로 돌린다.

- 3) 장인진, 『새로 발굴된 이증경의 오대어부가』, 『도서관학』 2·3, 한국도서관학회, 1983, 167~188쪽.
- 4) 이형태, 『어부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인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112쪽.
- 5) 임주탁, 『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어부가>, <오류가>, <도산육곡> 계열 연시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61쪽.
- 6) 최호석, 『<오대어부가>를 통해 본 17세기 강호시가의 한 양상』, 『어문논집』 36, 민족어문학회, 1997, 156쪽.
- 7) “17세기에 들어서면 시조의 주요 창작자인 사대부 계층도 그 재지적 기반이나 사회적 처지, 도학적 이념의 견지 등 여러 부면에서 분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벼슬길에서 현저하게 멀어져간 사족층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호시조도 시적

<오대어부가>(9곡)의 창작 의도는 <자서(自序)>에 근거하여, 강호지락(江湖之樂)에 심취된 어부의 서민적이고 소박한 생활을 보여주고자 제작된 것<sup>8)</sup>과, 산수지락(山水之樂)을 노래하되, 자신에 맞는 노래와 자신의 가론(歌論)에 입각한 노래를 짓기 위한 것<sup>9)</sup>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자신에 맞는 노래와 자신의 가론에 입각한 노래를 짓는 과정에서, <오대어부가>(9곡)는 이현보의 <어부사>(장가)를 모방하거나 <어부사>(장가)와 <무이도가(무이구곡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정리<sup>10)</sup>가 이루어졌다.

<오대어부가>(9곡)의 작품론은 소재, <적벽부>의 영향, 구조, 주제(의식) 등의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소재는 ‘오대(梧臺)라는 지역적 경치’와 ‘어용으로 지락(知樂)하는 작자심중의 승경(勝景)’<sup>11)</sup>, 또는 “때로는 계변에서 때로는 강 위에서 노니는 그때 그때의 흥취”<sup>12)</sup>로 정리되었다. <적벽부>가 <오대어부가>에 미친 영향은 몇몇 시어의 차원<sup>13)</sup>에서 정리되었다. 논리적 구조는 9곡을 병렬한 병렬적 구조로 보면서, 제1곡만은 동시

---

인식이나 미의식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져옴은 물론 ‘나아간 세계’와 ‘물러난 세계’라는 단순논법으로는 이미 해명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이형대, 앞의 논문, 105쪽), “16세기 사회경제사의 일반적 정황으로 본다면 수궁할 만도 하지만, 문집을 검토해 볼 때 문헌적 근거가 희박하여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이형대, 앞의 논문, 105쪽).

- 8) 장인진, 앞의 논문, 168쪽.  
 9) 박이정, 『이중경의 노래에 대한 의식 및 시가 창작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22, 한국시가학회, 2007, 166~167쪽. 이런 주장은 장인진, 임주탁, 이형대, 이상원 등의 글에서도 보이지만, 박이정의 글이 이에 초점을 맞추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10) 장인진, 앞의 논문, 167~168쪽, 176~177쪽; 임주탁, 앞의 논문, 52~53쪽, 59쪽; 이형대, 앞의 논문, 112쪽; 이상원, 『17세기 시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109쪽.  
 11) 장인진, 앞의 논문, 173쪽.  
 12) 이형대, 앞의 논문, 112쪽.  
 13) 장인진, 앞의 논문, 174쪽; 박완식, 『<어부사>에 나타난 한시의 영향』, 『어문연구』 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111쪽.

에 ‘서곡(序曲)’으로도 보고 있다<sup>14)</sup>. 그리고 본격적인 구조론은 아니지만, 내용의 윤곽을 정리한 글도 보인다.<sup>15)</sup> 주제 내지 주제의식은 ‘강호생활에서 자연미를 발견하여 어부의 평온(平穩)한 심정과 함께 자연에 도취된 망아(忘我)의 경지’<sup>16)</sup>, “어부 생활의 즐거움”<sup>17)</sup>, “작자가 소망하는 지향적 삶의 미적 성취로 … 고단한 세속세계의 시름으로부터 탈출, 또는 망각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sup>18)</sup>, “오대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지향의식”<sup>19)</sup> 등으로 정리되어 왔다.

이렇게 정리되는 이중경의 <오대어부가>(9곡)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의 측면에서 다시 뒤돌아보면, 결속과 종결은 검토된 바가 없으며, 구조와 주제의 연구는 어느 정도 검토되어 왔으나, 미진함을 느낀다. 기왕의 거의 모든 연구들이 <오대어부가>(9곡)의 작품론만을 단독으로 연구하지 않고, 다른 작품들과 함께 다양한 관심 영역을 연구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겠지만, 구조의 경우에 기왕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정리될 가능성이 많아, 그 정치한 분석과 정리를 필요로 하며, 주제의 경우에도 구조에 기초한 논리적인 설명과 정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오대어부가>(9곡)의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보면, 제2~4곡의 텍스트, 제5~7곡의 텍스트, 제5~9곡의 텍스트, 제2~7곡의 텍스트, 제1~9곡의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 연시조의 성격을 보인다. 게다가 이 다섯 텍스트들은 각각 이중경이 오대구곡에 들어온 목적과

---

14) 이형대, 앞의 논문, 112쪽, 115쪽; 조유영, 『<오대어부가구곡>에 나타난 ‘오대’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시조학논총』 41, 한국시조학회, 2014, 173쪽.

15) 조유영, 앞의 논문, 173쪽.

16) 장인진, 앞의 논문, 173쪽.

17) 임주탁, 앞의 논문, 59쪽.

18) 이형대, 앞의 논문, 115쪽.

19) 조유영, 앞의 논문, 182쪽.

그 목적들의 실천을 노래한 것들에 부합하면서 독자적인 수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제2~4곡의 텍스트는 노모의 봉양(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즐겁게 하기)을 위한 즐거운 낚시 및 유람과 그 노래에, 제5~7곡의 텍스트와 제5~9곡의 텍스트는 산수의 즐거움을 즐기는 유람과 그 노래에, 제2~7곡의 텍스트와 제1~9곡의 텍스트는 노모의 봉양(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즐겁게 하기)을 위한 즐거운 낚시와 유람 및 산수의 즐거움을 즐기는 유람과 그 노래에 각각 부합하면서, 각각 독자적인 수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원고 분량상 제5~7곡의 텍스트와 제2~7곡의 텍스트는 제외하고, 제2~4곡의 텍스트, 제5~9곡의 텍스트, 제1~9곡의 텍스트 등의 세 텍스트에 한정하여,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하여,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을 검토 정리하고자 한다.

## 2. 오대 상류(제2~4곡)의 텍스트

이 장에서는 오대 상류(제2~4곡)의 텍스트에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두 절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 1) 결속과 종결

제2~4곡 텍스트의 결속과 종결을 정리하기 위해,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서 텍스트를 보자. 원문의 한자는 괄호 안에 넣었다.

이곡(二曲) 조어주(釣漁舟)를 벽파(碧波)에 띄워가자.

아히야 놀 저어라 석치(石齒)에 걸릴세라

더우희 녹태기두(綠苔磯頭)의 백구(白鷗)흔디 가리라.(제2곡)

삼곡(三曲) 일간죽(一竿竹)을 석양(夕陽)의 빗기들고  
청강(淸江)을 구버보니 백어(白魚)도 하도 할사  
이 맛술 세상인간(世上人間)의 제 누라서 알리오.(제3곡)

사곡(四曲) 관유어(貫柳魚)를 비에 담아 돌아오니  
백사(白沙) 정주(汀洲)의 노성(櫓聲)이 얼의었다.  
아히야 주일배(酒一盃) 브어라 어부사(漁父詞)를 브로리라.(제4곡)

제2~4곡의 텍스트는 하나의 반복표현에 의해 결속을 보여주고, 두 대칭표현에 의해 결속과 종결을 보여준다.

먼저 반복표현에 의한 결속을 보자. 제2, 3, 4곡의 초장들을 보면, “○곡 ○○○를/을 ○(○)에/의 …”의 구문을 반복한다. 이 반복표현은 “이곡(二曲) 조어주(釣漁舟)를 벽파(碧波)에 썩위가자.”(제2곡 초장), “삼곡(三曲) 일간죽(一竿竹)을 석양(夕陽)의 빗기들고”(제3곡 초장), “사곡(四曲) 관유어(貫柳魚)를 비에 담아 돌아오니”(제4곡 초장) 등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반복표현은 제2~4곡 텍스트의 결속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두 대칭표현에 의한 결속과 종결을 보자.

첫째는 [“… 썩위가자”(제2곡 초장)–대칭축(제3곡 초장)–“… 돌아오니”(제4곡 초장)]의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이곡(二曲) 조어주(釣漁舟)를 벽파(碧波)에 썩위가자.”(제2곡 초장)와 “사곡(四曲) 관유어(貫柳魚)를 비에 담아 돌아오니”(제4곡 초장)의 ‘썩위가자’와 ‘돌라오니’의 대칭표현, 좀더 명확하게 정리하면, ‘가’와 ‘오’의 대칭표현에서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 -리라”(제2곡 중장)–대칭축(제3곡 중장)–“… -리라”(제4

곡 종장]의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더 우희 녹태기두(綠苔磯頭)의 백구(白鷗)흔디 가리라.”(제2곡 종장)와 “아히야 주일배(酒一盃) 브어라 어부사(漁父詞)를 브로리라.”(제4곡 종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두 대칭표현은 제2~4곡의 결속이 대칭적 결속임을 보여주고, 동시에 시종의 대칭에 의해 제4곡이 종결임을 보여준다.

## 2) 구조와 주제

이 절에서는 제2~4곡 텍스트에서 구조와 주제를 정리하려 한다. 먼저 이 텍스트의 구조를 배경시공간의 구조와 논리적 구조로 나누어서 정리한다.

배경시간에서 춘하추동은 명확하지 않고, 제3곡만이 사시의 ‘석양(夕陽)’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석양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시간을 배경시간으로 하는 순차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제2곡의 조어주를 띄워 녹태기두(綠苔磯頭)의 백구(白鷗)에게 가는 시간, 제3곡의 청강에서 백어를 낚시하는 석양의 시간, 제4곡의 관유어(貫柳魚)를 배에 담아 돌아오는 시간 등의 순차적 구조이다.

배경공간은 상류(上流)<sup>20</sup>에 속한 구곡을 왕복(往復)하는 구조이다. 제2곡의 공간은 조어주를 띄우는 계정(溪亭)으로 추정된다. 이 제2곡의 종장에서는 시적 화자가 배를 띄워 가고자 하는 곳이 계정을 기점으로 상류(上流)에 있는 녹태기두임을, 종장인 “더 우희 녹태기두(綠苔磯頭)의 백구(白鷗)흔디 가리라.”에서 보여준다. 제3곡의 공간은 낚시를 하는 청강(淸江)인데, 이 청강은 녹태기두의 청강일 수도 있고, 녹태기두와 떨어진 장소일 수도 있다. 편의상 별개의 장소로 정리한다. 제4곡의 공간은 계정

20) 이 글에서는 溪亭을 기점으로 그 위에 있는 오대구곡을 상류(上流)로, 그 아래 있는 오대구곡을 하류(下流)로 정리하였다.



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백사(白沙) 정주(汀洲)를 배로 지나는 공간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계정에서 배를 띄워서 녹태기두로 가는 공간(제2곡) → (백사 정주) → 청강(제3곡) → 백사 정주를 지나 계정으로 돌아오는 공간(제4곡) 등과 같이, 계정을 기점으로 상류에 속한 구곡을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왕복하는 배경공간의 구조이다.

이 텍스트의 주제는 [오대구곡의 상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낚시와 유람(또는 뱃놀이)]이며, 논리적 구조는 순차적 구조와 대칭적 구조이다. 이를 차례로 정리해 보자.

제2곡은 “이곡(二曲) 조어주(釣漁舟)를 벽파(碧波)에 썩워가자. / 아히야 놀 저어라 석치(石齒)에 걸릴세라. / 더 우회 녹태기두(綠苔磯頭)의 백구(白鷗)흔디 가리라.”이다. 이 제2곡의 주제는 [상류(上流)로 낚시를 가면서(녹태기두의 백구에게 가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주제는 낚시를 나아가는 유람(또는 뱃놀이)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제2곡의 문면에는 즐기는 행동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낚시, 유람, 뱃놀이 등이 즐기기를 내면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이란 표현을 주제에 포함시켰다. 상류(上流)임은 종장의 ‘더 우회’(저 위의)가 말해준다.

제3곡은 “삼곡(三曲) 일간죽(一竿竹)을 석양(夕陽)의 빗기들고 / 청강(淸江)을 구벼보니 백어(白魚)도 하도 할샤 / 이 맞살 세상인간(世上人間)의 제 다투라서 알리오.”이다. 이 제3곡의 주제는 [청강에서 석양에 남모르는 맛(호뭇하고 기쁨)을 즐기는 낚시]로 정리할 수 있다. 제3곡의 자체에서는 많은 백어를 보면서 영탄하고 있다. 이 영탄은 영탄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백어를 ‘낚으면서’의 의미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많은 백어에 대한 영탄으로 끝나지 않고, 종장에서 남모르는 맛을 노래하고, 제4곡의 초장에서 관류어(貫柳魚)를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백어를 낚으면

서라는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주제에 포함된 남모르는 즐거운 맛은 직접 보여주지 않고, 설의법으로 유도하고 있다. 시적 화자가 초장과 중장의 상황에서 느낀 맛(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느끼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낚싯대를 메고 간 청강의 낚시터에 물고기가 많을 때(또는 청강의 낚시터에서 많은 물고기를 낚았을 때) 느끼는 맛은, 호뭇하고 기쁜 즐거움이다. 왜냐하면, 낚시를 갔을 때, 우선 물고기가 많으면,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호뭇하고 기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고, 많은 물고기를 낚았을 때는 욕구의 충족에서 오는 호뭇하고 기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노래한 것은 다른 <어부가>류나 <어부사>류에서 볼 수 없는 이 작품만의 특색이다.

제4곡은 “사곡(四曲) 관유어(貫柳魚)를 킨에 담아 돌아오니 / 백사(白沙) 정주(汀洲)의 노성(櫓聲)이 얼의였다. / 아히야 주일배(酒一盃) 브어라 어부사(漁父詞)를 브로리라.”이다. 이 제4곡의 주제는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백사 정주를 지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이다. 이 주제와 제4곡에서 보이는 백사(白沙) 정주(汀洲)는 청강에서 낚시를 마치고, 관유어(貫柳魚, 버들가지에 꿰 물고기)를 배에 싣고 계정으로 돌아오면서 본 오대구곡의 한 곳이다. 그리고 중장인 “백사(白沙) 정주(汀洲)의 노성(櫓聲)이 얼의였다.”는 한적(閑適)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 중장에 나온 ‘얼의였다’의 ‘어리다’는 “어떤 현상, 기운, 추억 따위가 배어 있거나 은근히 드러나다.”의 의미이다. 이 의미를 계산하여 중장인 “백사(白沙) 정주(汀洲)의 노성(櫓聲)이 얼의였다.”를 해석하면, 백사(白沙) 정주(汀洲)에 배를 젓는 소리가 배어 있구나 또는 백사(白沙) 정주(汀洲)에 배를 젓는 소리가 은근히 드러났구나 등으로 해석되면서, 한적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중장인 “아히야 주일배(酒一盃) 브어라 어부사(漁父詞)를 브로리라.”를 통하여, 유람(또는 뱃놀이)을 흥겹게 즐기고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제2~4곡의 주제들을 옮겨 쓰면 다음과 같다.

제2곡 : [상류(上流)로 낚시를 가면서(녹태기두의 백구에게 가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

제3곡 : [청강에서 석양에 남모르는 맛(호뜻하고 기쁨)을 즐기는 낚시]

제4곡 :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백사 정주를 지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

이 주제들과 앞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보아, 이 제2~4곡의 논리적 구조는 순차적 구조와 대칭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유람, 낚시, 유람 등을 순차적으로 노래했다는 점에서 보면, 순차적 구조이고, 제2곡의 낚시를 가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과 제4곡의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이 제3곡의 청강에서 석양에 남모르는 맛을(호뜻하고 기쁨)을 즐기는 낚시를 대칭축으로 대칭한다는 점에서 보면, 대칭적 구조이다. 주제는 [오대구곡의 상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낚시와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주제의 ‘즐기는 낚시’는, <자서>에서 보이는, “모친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모친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sup>21)</sup>

21) “아! 내 일찍이 집이 가난하여 노모를 봉양할 계책이 없었던지라 드디어 오곡의 사이에 고기잡는 농막을 설치하였다. 물소 고기를 잡아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린 지가 거의 오륙 년이나 되었다. 개중에 산수의 즐거움도 내가 멀리하지 않은 즉 왕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 은선옥척은 귀가하면 모친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채마밭의 푸성귀와 들판의 나물은 진수성찬을 대신할 만하니 내 마음에 장차 백년의 즐거움을 기약하였다.”(噫 余 嘗家貧無以爲養老之計 遂置漁庄於梧谷之間 躬漁以歸 爲供滋味者 殆五六載 而箇中山水之樂 不余以遠 則因又往來之不惰焉 …… 銀鮮玉尺 歸悅親心 園蔬野蕪 可代以珍羞 將期以百年之樂於吾情矣, <梧臺漁父歌 自序>, 『雜卉園集』)

이렇게 이 텍스트에서는 연시조를 연시조이게 하면서, 텍스트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결속과 종결은 물론, 통일된 구조와 주제도 보여준다. 이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이 텍스트가 제1~9곡에서 분리되어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텍스트는 맛있는 음식으로 노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낚시와 유람(또는 뱃놀이)을 하거나 이를 노래할 경우에 제1~9곡에서 분리되어 수용된 텍스트로 짐작된다.

### 3. 오대 하류(제5~9곡)의 텍스트

이 장에서는 오대 하류(제5~9곡)의 텍스트에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두 절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 1) 결속과 종결

제5~9곡의 결속과 종결을 보기 위하여,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서 제5~9곡을 보자.

오곡(五曲) 입소여(任所如)ᄃᆞ니 청탄(淸灘)의 흘러떠가  
프레묵 도라드러 벽담(碧潭)의 머물거다.

아히야 놀 저어 내여라 석병하(石屏下)의 가자.(제5곡)

육곡(六曲) 여유세(如遺世)ᄃᆞ니 신심(身心)도 한적(閑適)홀사  
어하(魚鰕)를 버들 삼고 수석(水石)을 지블삼아

늪기를 다 니즌 후의 놀고 노자 ᄃᆞ노라.(제6곡)

칠곡(七曲) 부용석(芙蓉石)이 파중(波中)의 탁출(濯出)ᄃᆞ니

태화봉(太華峯) 옥정(玉井)의 십장화(十丈花) 피었는듯  
차간(此間)의 태을진인(太乙真人)이 연엽주(蓮葉舟)를 타인는듯.(제7곡)

팔곡(八曲) 자회연(恣回沿)하니 강광(江光)이 무제(無際)흔디  
청풍(淸風) 서래(徐來)하니 수파불흥(水波不興) 헛엿도다.  
이 비를 중주(中洲)에 머므러 풍경(風景) 보기 조해라.(제8곡)

구곡(九曲) 소유광(泝流光)하여 계정(溪亭)에 도라가자.  
만강(滿江)흔 풍월(風月)을 이 비에 시러시니  
가다가 더근듯 머므러 다시 놓고 그티자.(제9곡)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서 이 텍스트를 보면, 세 종류의 대칭표현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곡 ○○○ㅎ- …”(제5곡 초장)–“○곡 ○○○ㅎ- …”(제6곡 초장)–“○곡 ○○○이 …”(대칭축, 제7곡 초장)–“○곡 ○○○ㅎ- …”(제8곡 초장)–“○곡 ○○○ㅎ- …”(제9곡 초장)]의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제5~9곡의 초장들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제5, 6, 8, 9곡의 초장들을 보면 “○곡 ○○○ㅎ- …”를 반복한다. 특히 “○곡 ○○○ㅎ- …”의 ‘○○○’에서는 ‘임소여’(任所如, 제5곡), ‘여유세’(如遺世, 제6곡), ‘자회연’(恣回沿, 제8곡), ‘소유광’(泝流光, 제9곡) 등과 같이 ‘-ㅎ-’ 앞에서 용언의 어근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칭축에 해당하는 제7곡에서는 “○곡 ○○○이 …”를 일탈한 “○곡 ○○○이 …”를 보여준다. 특히 “○곡 ○○○이 …”의 ‘○○○’에서는 용언의 어근이 아니라 ‘부용석’(芙蓉石)이라는 자연석의 고유명사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는 [“… -자”(제5곡 종장)–대칭축(제7곡 종장)–“… -자”(제9곡 종장)]의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아히야 놀 저어 내여라 석병하(石

扉下)의 가쟝.”(제5곡 종장)와 “가다가 더근듯 머므러 다시 놓고 그티  
쟝.”(제9곡 종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셋째는 [“… -라”(제6곡 종장)-대칭축(제7곡 종장)-“… -라”(제8곡  
종장)]의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늑기를 다 니즌 후의 놓고 노자  
흐노라.”(제6곡 종장)와 “이 비를 중주(中洲)에 머므러 풍경(風景)보기  
쥬해라.”(제8곡)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세 대칭표현에서 제5곡과 제9곡의 대칭표현을 A-A로, 제6곡과 제  
8곡의 대칭표현을 B-B로, 대칭축(제7곡)을 C로, 바꾸어 정리하면, 이 텍  
스트는 [A(제5곡)-B(제6곡)-C(제7곡, 대칭축)-B(제8곡)-A(제9곡)]  
의 대칭표현이 된다. 이 대칭표현은 이 텍스트의 결속이 대칭표현에 의한  
대칭적 결속임을 보여주고, 동시에 시작 부분인 A(제5곡)의 대칭인 A(제  
9곡)가 종결임을 보여준다.

## 2) 구조와 주제

배경시간은 제9곡만이 달밤을 보여줄 뿐, 다른 곡들은 사시와 사철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어서 볼 배경공간에서 오대구곡의  
하류(淸灘, 楓隈, 碧潭, 石扉下, 芙蓉石, 中洲 등)를 차례로 유람하고  
돌아오는 왕복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배경시간의 구조 역시 순차  
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배경공간은 계정을 출발하여 아래로 청탄(淸灘), 楓隈, 碧潭  
등(제5곡)을 지나 석병하(石扉下, 제6곡)와 부용석(芙蓉石, 제7곡), 중주  
(中洲, 제8곡) 등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왕복의 과정을 통하여, 오대구곡  
의 하류를 노래하였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구  
조이다. 제5곡이 계정에서의 출발을 노래하였다는 사실은, 제5~9곡의 내

용, 특히 제9곡 초장의 “계정(溪亭)에 도라가자”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이다. 그리고 제6곡의 석병하(石屏下)는 제5곡의 종장인 “아히야 놀 저어 내여라 석병하(石屏下)의 가자.”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와 주제를 보자. 이 텍스트의 주제는 [오대구곡의 하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구현한 논리적 구조는 순차적 구조와, 점층적 구조와 점강적 구조가 결합된 대칭적 구조이다. 이런 사실을 차례로 보자.

제5곡은 “오곡(五曲) 임소여(任所如) 하니 청탄(淸灘)의 흘러떠가 / 프래목 도라드러 벽담(碧潭)의 머물거다. / 아히야 놀 저어 내여라 석병하(石屏下)의 가자.”이다. 이 제5곡의 주제는 [(계정을 출발하여) 석병하로 내려가면서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임소여(任所如, 배가 가는 바에 맡김) 하니”와 “청탄(淸灘)의 흘러떠가(흘러떠가) / 프래목 도라드러 벽담(碧潭)의 머물거다.”에서 알 수 있으며, 석병하에 가기는 “아히야 놀 저어 내여라 석병하(石屏下)의 가자.”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주제와 내용에 포함된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유람과 뱃놀이가 포함한 즐거움이다. 유람은 “돌아다니며 구경(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봄)함”을 뜻하는데, 이에 포함된 흥미의 의미인 “흥을 느끼는 재미(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에서 볼 수 있는 즐거운 기분이 한가한 유람에서 즐기는 즐거움이다. 또한 한가한 뱃놀이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놀이의 의미(“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냄”)에 포함된 즐거움이다.

제6곡은 “육곡(六曲) 여유세(如遺世) 하니 신심(身心)도 한적(閒適) 흘샤 / 어허(魚鰕)를 버들 삼고 수석(水石)을 지불삼아 / 늪기들 다 나즌 후의 놀고 노자 흥노라.”이다. 이 제6곡의 주제는 [석병하에서 한적하게 즐

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기(自己)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지내는 한적(閒適, 한가하게 자적하는)한 뱃놀이는 “신심(身心)도 한적(閒適)홀사”를 통하여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장인 “어하(魚鰕)를 버들 삼고 수석(水石)을 지불삼아”와 종장인 “늪기를 다 니즌 후의 놀고 노자 흐노라.”를 통하여 잘 보여준다. 한적에 포함된 자적(自適, 무엇에도 束縛됨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生活함)은 속세에 속박됨이 없음을 의미하는 ‘여유세(如遺世, 세상을 버린 것 같음)’가 잘 보여준다. 이 제6곡의 주제인 한적(閒適)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제5곡의 주제인 한가(閑暇)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에 점층된 것이다.

제7곡은 “칠곡(七曲) 부용석(芙蓉石)이 파중(波中)의 탁출(濯出)하니 / 태화봉(太華峯) 옥정(玉井)의 십장화(十丈花) 피엿는듯. / 차간(此間)의 태을진인(太乙眞人)이 연엽주(蓮葉舟)를 타인는듯.”이다. 이 제7곡의 주제는 [부용석에서 신선같이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곡에서는 파중(波中, 파도 속)에 탁출(濯出, 씻고 나타남)하는 부용석[부용(연꽃) 모양의 돌]의 아름다움을 태화봉 옥정의 십장화가 핀 것<sup>22)</sup>에 견주며, 그 사이에서 유람(또는 뱃놀이)하는 시적 화자 자신을 태을진인이 연엽주를 탄 것<sup>23)</sup>에 비유하였다. 이 제7곡의 주제인 신선같이

22) 이 중장은 『한창려집(韓昌黎集)』 제3권과 『고문진보(古文眞寶)』 전집(前集) 제4권에 수록된 한유(韓愈)의 <고의(古意)>(太華峰頭玉井蓮 / 開花十丈藕如船 // 冷比雲霜甘比蜜 / 一片入口沈痼痊 // 我欲求之不憚遠 / 青壁無路難資緣 // 安得長梯上摘實 / 下種七澤根株連)에서 그 기련(起聯)인 “태화봉두옥정련(太華峰頭玉井蓮) 개화십장우여선(開花十丈藕如船)”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23) 이와 같은 표현은 백광홍(1522~1556)이 지은 <관서별곡>(1555)에서 “太乙眞人 / 蓮葉舟 타고 / 玉河水로 누리는 듯”으로, 박인로(1561~1642)가 지은 <사제곡>(1611)에서 “아득던 前山도 忍後山에 보이나다 / 須臾羽化하여 蓮葉舟에 올랐는 듯 / 東坡 赤壁遊인들 이내 興에 어찌 더며”로 각각 나타나기도 한다.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제6곡의 주제인 한적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에 집중된 것이다.

제8곡은 “팔곡(八曲) 자회연(恣回沿) 하니 강광(江光)이 무제(無際) 흐  
터 / 청풍(淸風) 서래(徐來) 하니 수파불흥(水波不興) 흐엿도다. / 이 비  
를 중주(中洲)에 머므러 풍경(風景) 보기 조해라.”이다. 이 제8곡의 주제는 [중주(中洲)에서 한적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곡에서 즐기고 있는 대상은, 중주에서 즐기고 있는 좋은 풍경으로, 강광(江光, 강의 풍경)이 무제(無際, 넓고 멀어서 끝이 없음)한데, 청풍이 서래하고 수파가 불흥하는 경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적하게 즐기고 있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자회연(恣回沿, 恣: 내키는 대로 하다, 回: 돌다, 沿: 물을 따라 가다, 내키는 대로 돌고 물을 따라감) 하니”에서 알 수 있다. 이 제8곡의 주제인 한적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신선같이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을 노래한 제7곡에서 보면 점장된 것이고, 한적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을 노래한 제6곡에서 보면 제7곡을 대칭축으로 대칭된 것이다.

제9곡은 “구곡(九曲) 소유광(泝流光) 흐여 계정(溪亭)에 도라가자. / 만강(滿江) 흐 풍월(風月)을 이 비에 시러시니 / 가다가 더근듯 머므러 다시 놓고 그티자.”이다. 이 제9곡의 주제는 [계정으로 올라(되돌아)가면서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계정으로 올라(되돌아)가는 사실은 초장의 “계정(溪亭)에 도라가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뱃놀이)은 종장인 “가다가 더근듯 머므러 다시 놓고 그티자.”에서 알 수 있다. 이 제9곡의 주제인 [계정으로 올라(되돌아)가면서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제8곡의 한적하게 즐기는 유람(뱃놀이)에서 보면 점장된 것이고, 제5곡의 주제인 [(계정을 출발하여) 석병하로 내려가면서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에서

보면 제7곡을 대칭축으로 대칭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제5~9곡의 곡별 주제를 다시 옮겨 쓰면 다음과 같다.

제5곡 : [(계정을 출발하여) 석병하로 내려가면서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

제6곡 : [석병하에서 한적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

제7곡 : [부용석에서 신선같이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

제8곡 : [중주에서 한적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

제9곡 : [계정으로 올라(되돌아)가면서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

위의 주제들에서 보듯이, 제5~9곡은 계정을 출발하여 하류에 있는 오대의 구곡(청탄, 프래목, 벽담, 석병하, 부용석, 중주 등)을 왕복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을 대칭적으로 노래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는 점층적 구조와 점강적 구조가 결합된 대칭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유람을 순차적으로 노래했다는 점에서는 순차적 구조도 보여준다. 주제는 [오대구곡의 하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주제의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자서>의 “산수의 즐거움도 내가 멀리하지 않은 즉 왕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sup>24)</sup>와 일치한다.

24) “아! 내 일찍이 집이 가난하여 노모를 봉양할 계책이 없었던지라 드디어 오곡의 사이에 고기잡는 농막을 설치하였다. 몸소 고기를 잡아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린 지가 거의 오륙 년이나 되었다. 개중에 산수의 즐거움도 내가 멀리하지 않은 즉 왕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 은선옥척은 귀가하면 모친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채마밭의 푸성귀와 들판의 나물은 진수성찬을 대신할 만하니 내 마음에 장차 백년의 즐거움을 기약하였다.”(噫 余 嘗家貧無以爲養老之計 遂置漁庄於梧谷之間

이렇게 이 텍스트에서도 연시조를 연시조이게 하면서, 텍스트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결속과 종결은 물론, 통일된 구조와 주제도 보여준다. 이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이 텍스트가 제1~9곡에서 분리되어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텍스트는 오대 하류의 산수를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을 하거나, 이를 노래할 경우에 수용된 텍스트로 짐작된다.

#### 4. 오대 상하류(제1~9곡)의 텍스트

이 장에서는 오대 상하류(제1~9곡)의 텍스트에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두 절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 1) 결속과 종결

제1~9곡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락은 제1곡이고, 제2단락은 제2~4곡이며, 제3단락은 제5~9곡이다. 이 중에서 제2~4곡 텍스트와 제5~9곡 텍스트에서 정리한 텍스트의 결속과 종결들은 이 텍스트에서는 제2단락과 제3단락의 단락내 결속과 종결들이 된다. 제1, 2, 3단락의 단락간의 결속과 종결을 정리하기 위하여,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서 제1~9곡을 보자.

일곡(一曲) 승계산(勝溪山)의 생애(生涯)를 브터두고

어초(漁樵)을 일을 삼아 백년(百年)을 보내리라.

어저워 무이구곡(武夷九曲)이 예도 권가 흐노라.(제1곡)

---

躬漁以歸 爲供滋味者 殆五六載 而箇中山水之樂 不余以遠 則因又往來之不惰焉 …… 銀鮮玉尺 歸悅親心 園蔬野蕨 可代以珍羞 將期以百年之樂於吾情矣, <梧臺漁父歌 自序>, 『雜卉園集』)

이곡(二曲) 조어주(釣漁舟)를 벽파(碧波)에 띄워가자.  
아히야 놀 저어라 석치(石齒)에 걸릴세라.  
더 우희 녹태기두(綠苔磯頭)의 백구(白鷗)흔디 가리라.(제2곡)

삼곡(三曲) 일간죽(一竿竹)을 석양(夕陽)의 빗기들고  
청강(淸江)을 구버보니 백어(白魚)도 하도 할사  
이 맛술 세상인간(世上人間)의 제 뉘라서 알리오.(제3곡)

사곡(四曲) 관유어(貫柳魚)를 빅예 담아 돌라오니  
백사(白沙) 정주(汀洲)의 노성(櫓聲)이 얼의였다.  
아히야 주일배(酒一盃) 브어라 어부사(漁父詞)를 브로리라.(제4곡)

오곡(五曲) 임소여(任所如)하니 청탄(淸灘)의 홀리떠가  
푸래목 도라드러 벽담(碧潭)의 머물거다,  
아히야 놀 저어 내여라 석병하(石屏下)의 가자.(제5곡)

육곡(六曲) 여유세(如遺世)하니 신심(身心)도 한적(閒適)홀사  
어하(魚鰕)를 버들 삼고 수석(水石)을 지블삼아  
늑기를 다 니즌후의 놀고 노자 흐노라.(제6곡)

칠곡(七曲) 부용석(芙蓉石)이 파중(波中)의 탁출(濯出)하니  
태화봉(太華峯) 옥정(玉井)의 십장화(十丈花) 피엇는듯.  
차간(此間)의 태을진인(太乙真人)이 연엽주(蓮葉舟)를 타인는듯.(제7곡)

팔곡(八曲) 자회연(恣回沿)하니 강광(江光)이 무제(無際)흔디  
청풍(淸風) 서래(徐來)하니 수파불흥(水波不興) 흐엇도다.  
이 빅틀 중주(中洲)에 머뜨리 풍경(風景)보기 쵸해라.(제8곡)

구곡(九曲) 소유광(泝流光) 흐여 계정(溪亭)에 도라가자.  
만강(滿江) 흐 풍월(風月)을 이 빅에 시러시니  
가다가 더근듯 머므러 다시 놀고 그티자.(제9곡)

이 텍스트는 한 종류의 결속과, 한 종류의 결속과 종결을 보여준다. 한 종류의 결속은 “일곡, 이곡, 삼곡, …… 구곡”이 보여주는 순차적 결속이다. 한 종류의 결속과 종결은, 인용에서 보듯이, 제5수를 대칭축으로 제1~4곡의 일부 표현들을 제6~9곡에서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상응하는 표현들을 대칭시킨 대칭표현을 통하여 보여주는 결속과 종결이다. 이 대칭표현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반복표현들을 먼저 정리해 보자.

제1, 6곡에서 상응하는 반복표현은 중장과 종장에서 발견된다. 중장의 경우에, “어초(漁樵)을 일을 삼아 백년(百年)을 보내리라.”(제1곡)와 “어하(魚鰕)를 버들 삼고 수석(水石)을 지불삼아”(제6곡)에서, “○○을/를 ○을/을 삼○ ○○을 …”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보인다. 종장의 경우에, “어저워 무이구곡(武夷九曲)이 예도 권가 흐노라.”(제1곡)와 “늑기를 다 니즌후의 놀고 노자 흐노라.”(제6곡)에서, “…… 흐노라.”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보여준다.

제2, 7곡에서 상응하는 반복표현은 초장, 중장, 종장 모두에서 발견된다. 초장의 경우에, “이곡(二曲) 조어주(釣漁舟)를 벽파(碧波)에 씩워가자.”(제2곡)와 “칠곡(七曲) 부용석(芙蓉石)이 파중(波中)의 탁출(濯出) 흐니”(제7곡)에서, “… -의/에 …”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보여준다. 중장의 경우에, “아히야 놀 저어라 석치(石齒)에 걸릴세라.”(제2곡)와 “태화봉(太華峯) 옥정(玉井)의 십장화(十丈花) 피엿는듯.”(제7곡)에서, “… -에/의 …”의 반복표현을 보여준다. 종장의 경우에, “더우흐 녹태기두(綠苔磯頭)의 백구(白鷗) 흐디 가리라.(제2곡)”(제2수)와 “차간(此間)의 태을진인

(太乙真人)이 연엽주(蓮葉舟)를 타인듯.”(제7곡)에서, “○○회/의 …”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보여준다.

제3, 8곡에서 상응하는 반복표현은 중장과 종장에서 발견된다. 중장의 경우에, “청강(淸江)을 구머보니 백어(白魚)도 하도 할샤.”(제3곡)와 “청풍(淸風) 서래(徐來)하니 수파불흥(水波不興) 하엿도다.”(제8곡)에서, “... -니 ...”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보여준다. 종장의 경우에, “이 맛슬 세상인간(世上人間)의 제 뉘라셔 알리오.”(제3곡)와 “이 빅틀 중주(中洲)에 머므러 풍경(風景)보기 조해라.”(제8곡)에서, “이 ○을 -의/에 ...”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보여준다.

제4, 9곡에서 상응하는 반복표현은 초장과 중장에서 발견된다. 초장의 경우에, “사곡(四曲) 관유어(貫柳魚)를 빅예 담아 돌라오니”(제4곡)와 “구곡(九曲) 소유광(派流光)하여 계정(溪亭)에 도라가자.”(제9곡)에서, “... -예/에 돌라/도라”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보여준다. 중장의 경우에, “백사(白沙) 정주(汀洲)의 노성(櫓聲)이 얼의엿다.”(제4곡)와 “만강(滿江)하 풍월(風月)을 이 빅예 시러시니”(제9곡)에서, “... -의/에 ...”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보여준다.

이상의 상응하는 반복표현들을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4곡	상응의 반복표현	제6~9곡
제1곡	“○○을/를 ○을/을 삼○ ○○을 ...”(중장)	제6곡
	“..... 하노라”(종장)	
제2곡	“... -의/에 ...”(초장)	제7곡
	“... -예/의 ...”(중장)	
	“○○회/의 ...”(종장)	
제3곡	“... -니 ...”(중장)	제8곡
	“이 ○을 -의/에 ...”(종장)	
제4곡	“... -예/에 <u>돌</u> 라/도라.”(초장)	제9곡
	“... -의/에 ...”(중장)	

이 상응하는 반복표현의 가운데 제5곡이 있어, 이 제1~4곡과 제6~9곡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이 대칭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상응하는 반복표현에서, 제1곡과 제6곡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A-A로, 제2곡과 제7곡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B-B로, 제3곡과 제8곡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C-C로, 제4곡과 제9곡의 상응하는 반복표현을 D-D로, 제5곡의 대칭축을 E로 정리하면, 이 텍스트는 [A(제1곡)-B(제2곡)-C(제3곡)-D(제4곡)-E(제5곡, 대칭축)-A(제6곡)-B(제7곡)-C(제8곡)-D(제9곡)]의 대칭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대칭표현은 이 텍스트의 결속이 대칭적 결속이며, 종결이 시종의 대칭표현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 2) 구조와 주제

구조를 배경시공간의 구조와 논리적 구조로 나누어 정리한다.

배경시간에서 제1곡은 통합적인 시간이다. 즉 “승계산(勝溪山)에 생애(生涯)를 붙여두고 어초(漁樵)을 일을 삼아 백년(百年)을 보내리라.”에서 보듯이, 오대에 기거를 정한 이후 미래까지를 포함하는 통합적 시간이다. 그리고 나머지 제2~9곡의 배경시간은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상류를 왕복하고 다시 하류를 왕복하는 순차적 구조이다. 이 순차적 구조는 낚시의 출발과 유람(제2곡), 낚시(제3곡), 되돌아옴과 유람(제4곡), 유람의 출발(제5곡), 유람(제6~8곡), 되돌아옴과 유람(제9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배경공간은 오대의 구곡인데, 제1곡은 구체적인 9곡(淸江, 綠苔磯頭, 白沙汀洲, (溪亭), 淸灘, 楓래목, 碧潭, 石屏下, 芙蓉石, 中洲)을 통합한 승계산의 공간이고, 나머지 제2~9곡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공간이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열한 구조이다. 1수의 1곡이 각각 한 공

간을 보여주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제5곡과 같이 여러 공간(계정(溪亭)→청탄(淸灘)→포래목(浦來木)→벽담(碧潭)]을 1곡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다른 <어부가>류나 <어부사>류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이다.

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는 서사(제1곡)와 본사(제2~9곡)의 구조이며, 본사는 대칭적/순차적 구조의 본사1(제2~4곡)과, 점층적/순차적 구조와 점강적/순차적 구조가 결합된 대칭적/순차적 구조의 본사2(제5~9곡)가 점강적으로 결합된 점강적 구조이다. 이 서사와 본사의 구조 중에서 서사를 보기 위하여 제1곡을 먼저 보자.

제1곡은 “일곡(一曲) 승계산(勝溪山)의 생애(生涯)를 브터두고 / 어초(漁樵)을 일을 삼아 백년(百年)을 보내리라. / 어저위 무이구곡(武夷九曲)이 예도 권가 흐노라.”이다. 이 제1곡의 주제는 [주자의 무이구곡과 같은 오대구곡에서 어부로 백년(百年)을 살겠다는 의지]로 정리할 수 있다. 승계산이 오대구곡이란 표현은 문면에 없다. 그러나 중장의 표현인 “어저위 무이구곡(武夷九曲)이 예도 권가 흐노라.”로 보면, 승계산이 오대구곡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승계산은 고유명사같이 보이나, 이중경의 글은 물론 해당 지역의 지명에서 ‘승계산’이란 고유명사를 지금까지는 발견할 수 없어, 이중경이 오대구곡을 포함하고 있는 산을 [아름다운 시내[溪]가 있는 산]의 의미로 명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제1곡에는 어부로 살겠다는 문자적 의미의 표현은 없다. 그러나 중장의 “어초(漁樵)을 일을 삼아 백년(百年)을 보내리라.”와 제목인 <오대어부가>로 보아, 어부로 살겠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제1곡의 주제인 [주자의 무이구곡과 같은 오대구곡에서 어부로 백년(百年)을 살겠다는 의지]는 이하의 제2~9곡을 포괄하고 이끈다는 점에서, 서사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정리한 세 단락(제1곡, 제2~4곡, 제5~9곡 등)의 주제를 옮겨 쓰면 다음과 같다.



제1곡 : [주자의 무이구곡과 같은 오대구곡에서 어부로 백년(百年)을 살겠다는 의지]

제2~4곡 : [오대구곡의 상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낚시와 유람(또는 뱃놀이)]

제5~9곡 : [오대구곡의 하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

이 세 단락의 주제로 보아, 제1~9곡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는, 서사(제1곡)와 본사[본사1(제2~4곡)과 본사2(제5~9곡)의 점강적 구조]<sup>25)</sup>로 구성된 서본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제는 [오대구곡의 상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낚시 및 유람(또는 뱃놀이)과, 하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의 ‘즐기는 낚시’와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자서>에서 보이는, “모친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모친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과 “산수의 즐거움도 내가 멀리하지 않은 즉 왕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의 결합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 텍스트에서도 연시조를 연시조이게 하면서, 텍스트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결속과 종결은 물론, 통일된 구조와 주제도 보여준다. 이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이 텍스트가 독립적으로도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텍스트는 맛있는 음식으로 노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낚시와 유람을 하고 산수의 즐거움을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을 하거나, 이를 노래할 경우에 수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25) 본사1의 노모의 봉양을 위한 낚시와 산수의 즐거움을 즐기는 유람에서, 노모의 봉양을 위한 낚시를 빼 것이 본사2의 산수의 즐거움을 즐기는 유람이란 점에서, 본사1과 본사2의 논리적 구조는 점강적 구조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오대어부가>(9곡)가 탈착형의 연시조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세 텍스트별[오대 상류(제2~4곡)의 텍스트, 오대 하류(제5~9곡)의 텍스트, 오대 상하류(제1~9곡)의 텍스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에서 얻은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려 한다.

먼저 제2~4곡 텍스트의 검토에서 얻은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2~4곡의 초장들에서 반복하는 “○곡 ○○○를/을 ○(○)에/의 …”의 구문은 반복표현에 의한 결속을 보여주고, [“… 씩위가자”(제2곡 초장)–대칭축(제3곡 초장)–“… 돌아오니”(제4곡 초장)의 대칭표현과 [“… -리라”(제2곡 종장)–대칭축(제3곡 종장)–“… -리라”(제4곡 종장)]의 대칭표현은 제2~4곡의 결속이 대칭적 결속임을 보여주고, 동시에 시종의 대칭에 의해 제4곡이 종결임을 보여준다.

2) 배경시간은 제2곡의 조어주를 띄워 녹태기두(綠苔磯頭)의 백구(白鷗)에 가는 시간, 제3곡의 청강에서 백어를 낚시하는 석양의 시간, 제4곡의 관유어(貫柳魚)를 배에 담아 돌아오는 시간 등의 순차적 구조이다. 배경공간은 계정에서 배를 띄워서 녹태기두로 올라가는 공간(제2곡) → (백사 정주) → 청강(제3곡) → 백사 정주를 지나 계정으로 돌아오는 공간(제4곡) 등과 같이, 계정을 기점으로 상류에 속한 구곡을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왕복하는 구조이다.

3) 논리적 구조는 [청강에서 석양에 남모르는 맛(호뭇하고 기쁨)을 즐기는 낚시](제3곡)를 대칭축으로 [상류로 낚시를 가면서(녹태기두의 백구에게 가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제2곡)과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백사 정주를 지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제4곡)이 대칭하

는 대칭적 구조이고, 동시에 유람, 낚시, 유람 등이 순차적으로 배열된 순차적 구조이다. 주제는 [오대구곡의 상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낚시와 유람(또는 뱃놀이)]이다. 이 주제의 ‘즐기는 낚시’는, <자서>에서 보이는, “모친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모친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5~9곡 텍스트의 검토에서 얻은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다음과 같다.

1) [“○곡 ○○○ㅎ- …”(제5곡 초장)–“○곡 ○○○ㅎ- …”(제6곡 초장)–“○곡 ○○○이 …”(대칭축, 제7곡 초장)–“○곡 ○○○ㅎ- …”(제8곡 초장)–“○곡 ○○○ㅎ- …”(제9곡 초장)]의 대칭표현, [“… -쟈”(제5곡 종장)–대칭축(제7곡 종장)–“… -쟈”(제9곡 종장)]의 대칭표현, [“… -라”(제6곡 종장)–대칭축(제7곡 종장)–“… -라”(제8곡 종장)]의 대칭표현 등에 의해 조성된, [A(제5곡)–B(제6곡)–C(제7곡, 대칭축)–B(제8곡)–A(제9곡)]의 대칭표현은, 이 텍스트의 결속이 대칭표현에 의한 대칭적 결속임을 보여주고, 동시에 시작 부분인 A(제5곡)의 대칭인 A(제9곡)가 종결임을 보여준다.

2) 배경공간은 계정을 출발하여 아래로 청탄(淸灘), 꾀래목, 벽담(碧潭) 등(제5곡)을 지나 석병하(石屏下, 제6곡)와 부용석(芙蓉石, 제7곡), 중주(中洲, 제8곡) 등을,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나아갔다 돌아오는 왕복의 구조이며, 배경시간은 계정을 출발하여 오대구곡의 하류(淸灘, 꾀래목, 碧潭, 石屏下, 芙蓉石, 中洲 등)를 차례로 유람하고 돌아오는 순차적 구조이다.

3) 논리적 구조는 [(계정을 출발하여) 석병하로 내려가면서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제5곡), [석병하에서 한적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제6곡), [부용석에서 신선같이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제7

곡), [중주에서 한적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제8곡), [계정으로 올라(되돌아)가면서 한가하게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제9곡) 등의 곡별 주제들이 보이는, 점층적 구조와 점강적 구조가 결합된, 대칭적 구조이며, 동시에 유람을 순차적으로 노래하였다는 점에서는 순차적 구조이다. 주제는 [오대구곡의 하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이다. 이 주제의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자서>의 “산수의 즐거움도 내가 멀리하지 않은 즉 왕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와 일치한다.

제1~9곡 텍스트의 검토에서 얻은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2~4곡 텍스트와 제5~9곡 텍스트의 결속과 종결은 제2단락(제2~4곡)과 제3단락(제5~9곡)의 단락내 결속과 종결이 되며, 이 텍스트에서 단락간의 결속은 “일곡, 이곡, 삼곡, …… 구곡”이 보여주는 순차적 결속과, 제5수를 대칭축으로 제1~4곡의 일부 표현들을 제6~9곡에서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상응하는 표현들에 의해 조성된, [A(제1곡)-B(제2곡)-C(제3곡)-D(제4곡)-E(제5곡, 대칭축)-A(제6곡)-B(제7곡)-C(제8곡)-D(제9곡)]의 대칭표현에 의해 이루어진 대칭적 결속이며, 이 대칭표현은 시중의 종결도 보여준다.

2) 배경시간에서 제1곡은 통합적인 시간이며, 나머지 제2~9곡의 배경시간은 상류를 왕복하고 다시 하류를 왕복하는 순차적 구조이다. 이 순차적 구조는 구체적으로는 낚시의 출발과 유람(제2곡), 낚시(제3곡), 되돌아옴과 유람(제4곡), 유람의 출발(제5곡), 유람(제6~8곡), 되돌아옴과 유람(제9곡) 등으로 정리된다. 배경공간은 오대의 구곡인데, 제1곡은 구체적인 9곡[淸江, 綠苔磯頭, 白沙汀洲, (溪亭,) 淸灘, 淸래목, 碧潭, 石屏下, 芙蓉石, 中洲]을 통합한 승계산의 공간이고, 나머지 제2~9곡은 개별적인 공간인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

에서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열한 구조이다.

3) 논리적 구조는 서사(제1곡)와 본사[본사1(제2~4곡, 대칭적/순차적 구조)과 본사2(제5~9곡, 대칭적/순차적 구조)의 점강적 구조]로 구성된 서본의 구조이며, 주제는 [오대구곡의 상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낚시 및 유람(또는 뱃놀이)과, 하류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이다. 이 주제의 ‘즐기는 낚시’와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은, <자서>에서 보이는, “모친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모친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과 “산수의 즐거움도 내가 멀리하지 않은 즉 왕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와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제2~4곡의 텍스트, 제5~9곡의 텍스트, 제1~9곡의 텍스트 등은 각각 연시조를 연시조이게 하면서, 텍스트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결속과 종결은 물론, 통일된 구조와 주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소용(所用)되는 경우가 각각, 1) 맛있는 음식으로 노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낚시와 유람(또는 뱃놀이)을 하거나 이를 노래할 경우, 2) 오대의 산수를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을 하거나, 이를 노래할 경우, 3) 맛있는 음식으로 노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낚시와 유람을 하고 산수의 즐거움을 즐기는 유람(또는 뱃놀이)을 하거나, 이를 노래할 경우 등과 같이 다르다는 점에서, <오대어부가>(9곡)는 제2~4곡의 텍스트, 제5~9곡의 텍스트, 제1~9곡의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의 연시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원고 분량상 제5~7곡의 텍스트와 제2~7곡의 텍스트는 다루지 않았다. 이 두 텍스트로도 탈착된다는 사실의 논의는 원고를 달리 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이중경, 『잡훼원집(雜卉園集)』(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총서 7),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1~214쪽.
- 박완식, 「<어부사>에 나타난 한시의 영향」, 『어문연구』 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94~114쪽.
- 박이정, 「이중경의 노래에 대한 의식 및 시가 창작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22, 한국시가학회, 2007, 139~170쪽.
- 양희철, 『연시조 작품론 일반: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중심으로』, 월인, 2016, 1~738쪽.
- 양희철, 「신흥의 제목 없이 합철된 두 연시조: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으로 본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 『청대학술논집』 2016년도 특집호 11권 (교수학습개발연구),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17a, 5~32쪽.
- 양희철, 「'유원십이곡'의 텍스트 연구: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으로 본 연시조의 합철 가능성」, 『청대학술논집』 28,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17b, 7~33쪽.
- 양희철, 「제목 없이 합철된 두 연시조(김천택)의 연구: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으로 본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 『어문연구』 1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c, 127~153쪽.
- 이상원, 「17세기 시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1~190쪽.
- 이형대, 「어부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인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1~178쪽.
- 임주탁, 「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어부가>, <오류가>, <도산육곡> 계열 연시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1~109쪽.
- 장인진, 「새로 발굴된 이중경의 오대어부가」, 『도서관학』 2:3, 한국도서관학회, 1983, 167~188쪽.
- 조유영, 「<오대어부가구곡>에 나타난 '오대'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시조학논총』 41, 한국시조학회, 2014, 161~185쪽.
- 최호석, 「<오대어부가>를 통해 본 17세기 강호시가의 한 양상」, 『어문논집』 36, 민족어문학회, 1997, 147~167쪽.

ABSTRACT

A Study on three text in <Odaeobuga>(9 Sijo)

— a probability of desorption type Yeonsijo through  
unity, closure, structure, and subject in each text —

Yang, Hee-cheol

This study looked upon a probability of desorption type Yeonsijo through unity, closure, structure, and subject in three text of <Odaeobuga>(9 Sijo) written by Lee, Jung-kyeong(1599~1678).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1. We ascertained the existence of unity and closure made by symmetrical expression, in three text(the first text of the 2-4 Sijo, in the second text of the 5-9 Sijo, the third text of the 1-9 Sijo) of <Odaeobuga>(9 Sijo), and the existence of unity made by repetitive expression in third text.

2. We ascertained the existence of sequential structure in background time and the existence of sequential and return structure in background space in three text of <Odaeobuga>(9 Sijo).

3. We ascertained the existence of symmetrical/sequential structure in logic of the first text(the 2-4 Sijo), the existence of symmetrical/sequential structure(combination of climactic structure and anticlimactic structure) in logic of the second text(the 5-9 Sijo), and the existence of introduction-body in logic of the third text(the 1-9 Sijo).

4. We ascertained the existence of subject, in three text of <Odaeobuga>(9 Sijo).

According to the result above, We understood a probability of desorption type Yeonsijo, because unity, closure, structure, and subject are found in three text of <Odaeobuga>(9 Sijo)

**Key Words** closure, desorption, structure, subject, unity

논문투고일 : 2017.09.30

심사완료일 : 2017.11.09

게재확정일 : 2017.11.15.